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6년 09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12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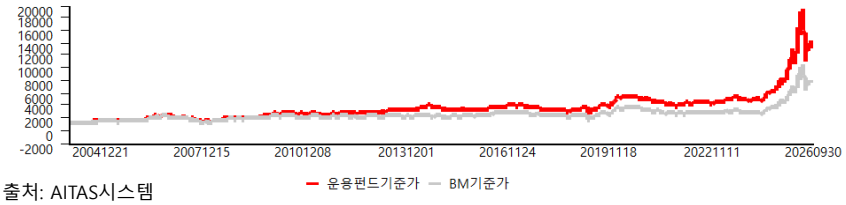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38%	-23.34%	30.77%	100.62%	189.07%	217.95%	171.45%	1,281.95%
클래스 A	1.25%	-23.68%	29.79%	97.58%	180.23%	203.22%	150.20%	393.35%
클래스 A-E	1.29%	-23.58%	30.07%	98.46%	182.80%	207.51%	156.34%	276.80%
클래스 C-E	1.24%	-23.70%	29.73%	97.39%	179.70%	202.34%	148.97%	300.27%
클래스 C-P2(연금저축)	1.27%	-23.63%	29.94%	98.04%	181.54%	205.38%	153.28%	223.16%
클래스 C5	1.24%	-23.70%	29.73%	97.41%	179.72%	202.37%	148.99%	358.63%
클래스 S	1.29%	-23.57%	30.11%	98.59%	183.15%	208.05%	157.08%	295.77%
클래스 S-P2	1.30%	-23.54%	30.19%	98.87%	184.01%	209.71%	159.81%	319.44%
벤치마크	0.26%	-19.33%	35.34%	99.67%	163.68%	177.40%	122.82%	673.2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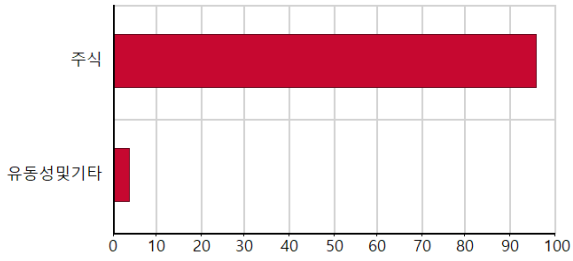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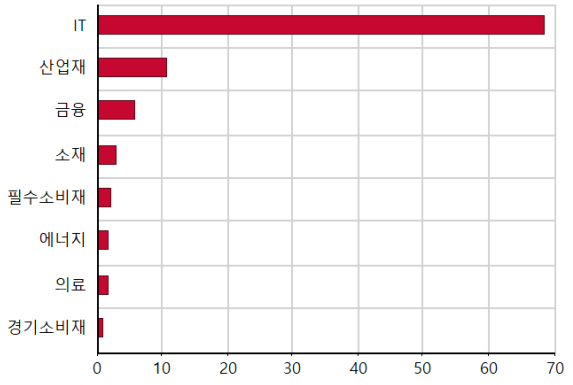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6.0
2	유동성및기타	4.0



<주식 업종별>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68.7
2	산업재	10.7
3	금융	6.1
4	소재	3.2
5	필수소비재	2.4
6	에너지	1.9
7	의료	1.9
8	경기소비재	1.1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9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30.1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4.3
SK스퀘어	금융	2.6
삼성전기	전기·전자	2.3
삼성SDI	전기·전자	1.5

종목명	업종명	비중(%)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1.3
KB금융	금융	1.2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1.1
삼성물산	유통	1.1
신한지주	금융	1.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6년 09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KOSPI는 전월 대비 0.26% 상승한 6,838.04pt, KOSDAQ은 2.59% 상승한 855.91pt로 마감했습니다. 월초 중동지역 무력 충돌이 다시 불거지며 국제유가와 미 금리가 크게 오르자 KOSPI 지수는 약 4%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CXMT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소식으로 반도체 투자심리까지 위축됐지만, 오픈AI 신규 모델 공개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기대치 상향과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이후 KOSPI는 7,000pt선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물가 부담과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커졌고, AI 투자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자 긴축 우려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에 주가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 후반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자사주 매입, 유가 하락에 힘입어 지수는 재차 상승세를 보였으나 월말 PCE 물가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KOSPI는 6,800pt선에서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정유, 인터넷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화장품, 자동차부품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8.40원으로 전월 대비 1.31% 하락했고, WTI 유가는 전월 대비 5.43% 상승한 9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이 4.7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3.0조원, 13.0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KOSDAQ150 IT, 자동차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화장품, 철강, 정유 업종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의 반등과 배당 효과, 삼성전자 후공정 밸류체인인 엑시콘과 SFA반도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삼양식품의 주가 조정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삼성SDI, 삼아알미늄 등 2차전지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차익실현하고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조선의 경우 AI 전력투자와 연동된 엔진 밸류체인에 대한 비중을 일부 확대하였고, 화장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출 상승을 기반으로 저가 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제약 업종과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및 자동차 관련 밸류체인에 대하여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금리 상승 구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 업종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0월 KOSPI 지수는 저점을 높여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8월 중순 이후 KOSPI 지수는 6,400~7,050pt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급등, AI 속도 조절 우려, 중동 사태 등으로 지수가 여러 차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으나, 하락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하방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10월에도 대내외 이벤트 및 미국 시장금리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가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었고, 금리 수준보다는 상승 속도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9월에 비해 금리 부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수는 9월 CPI와 고용,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10월 FOMC 등을 확인하며 점진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반도체, 하이퍼스케일러 등 주도주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9월 말 마이크론의 실적발표에서 강력한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충당금 설정, 환율 하락으로 인한 컨센서스 하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적 시즌에는 발표 수치보다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업황 전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도주에 대한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9월 이전과 같은 극심한 업종 순환매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금리 환경에 대응하여 이익 모멘텀이 견고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5.3%를 돌파하였고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갈등 지속이 고유가를 지지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증시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8월 물가지수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고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전월 대비 미국의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동성은 있으나 점진적인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의 장기금리, 유가, 환율 등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수 있어 해당 요인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며 펀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고금리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헷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시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과 보험에 대한 익스포져를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 기대치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업종 중심으로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 및 반도체 후공정 밸류체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미 ESS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하나 지속적으로 수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화장품 및 정유 등에 대해서도 실적 모멘텀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컸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6-09-30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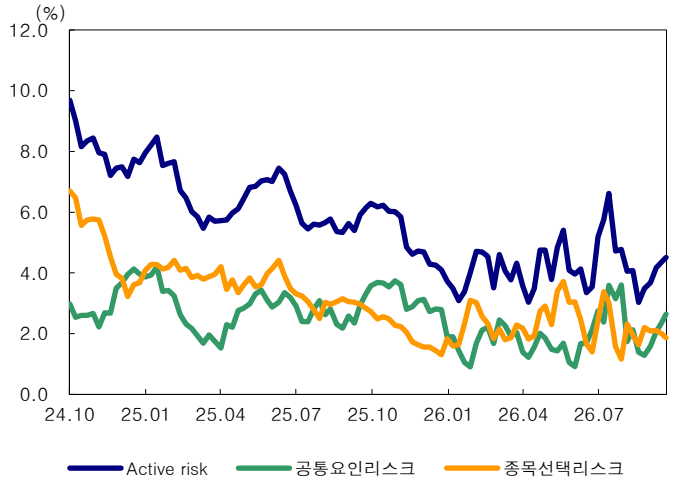
	2026-09-30	2026-08-31
Active Risk [1]	4.45%	3.85%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1.82%	1.19%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95%	1.04%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13%	0.1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2.64%	2.66%
베타	1.08	1.07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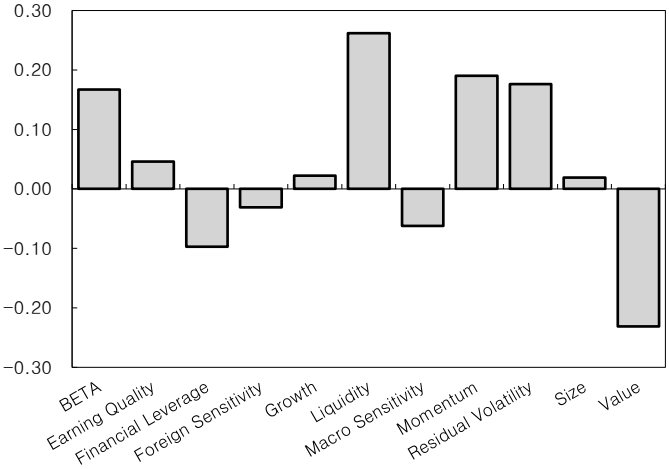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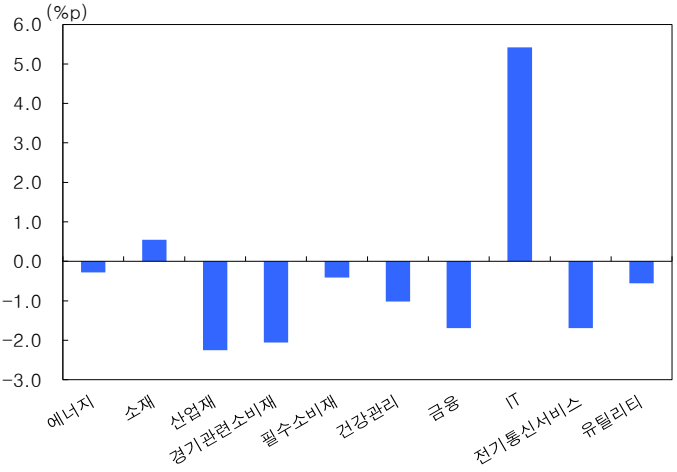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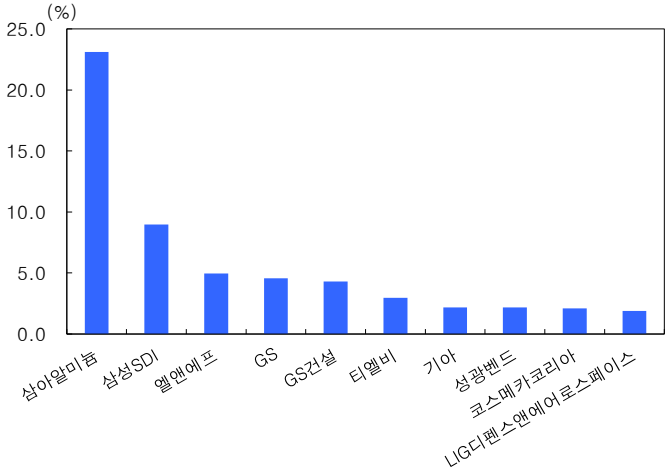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8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9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4.45%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4개 종목 증가하여, 90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IT', '필수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금융',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8월말 기준으로는 '삼아알미늄'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기아'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